

# ‘자비와 나눔’의 불 밝힌 축제

##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한마당...제등행렬 등 봉축열기 가득

5월 20일 서울 조계사 앞거리와 종로 일대는 연등장(蓮華藏) 세계였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거리에서는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의 장 ‘불교문화마당’이 열렸다. 100여개의 부스에서 외국인 등경연대회, 사찰음식 체험, 태극·대만·스리랑카 등 불교국가들의 전통공연과 전시, 전래놀이마당 등 다양한 체험과 화려한 불거리가 선보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야구장에서는 흥겨운 화합의 장 ‘어울림 마당’이 열렸다. 1부 어울림 마당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위대한 유산! 지혜의 연등은 높이 들시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한량이 없고, 너와 나를 가르는 어두운 장막마저 사라지

면, 산하대지 삼라만상은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 모두 화장장엄세계에서 수희 찬탄할 것”이라고 2부 연등법회의 개막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부다차리타> 경전 봉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 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불살행의 계율과 평화의 이념을 지켜 반전, 평화수호의 실천행을 펼쳐나 서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 우리의 말,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의 향기를 머금게 하소서”라고 기원했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또한 “대립과 투쟁에서 화합과 용서로 양극화의 반목에서 나눔과 보살핌으로 남과 북, 동과 서의 분단과 대립에서 불일과 협력으로 무한경쟁에서 무한화상

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오후 7시부터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제등행렬’이 동대문-종로-조계사로 이어졌다. 특히 ‘사신대사등’ ‘법화경등’ ‘세계일화등’ 등을 해 새롭게 선보인 각종 장엄등과 직접 만든 갖가지 오색등이 어두운 세상을 화려하게 밝혔다.

연등축제의 대미는 오후 9시 30분부터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진 ‘대동한마당’이 장식했다. 마야, 클론, 김현성과 우리나라, 최진석, 아단법석이 함께하는 연등음악회와 함께 강강술래와 꽃비가 어우러져 대중들이 열차안과 세계일화(世界一花)임을 실감했다.

한편 불기 2551년 등 경연대회 우수상에 한 마음선원·도선사, 특선에 전태종·능인선원, 입상에 수국사·화계사가 각각 선정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봉원사 분쟁’ 매듭 풀릴까

## 조·태 총무원장 참석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07년 제1차 조계종·태고종 대책위원회 회의가 5월 1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양 종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최도가 됐다. 특히 봉원사 사 소위 분규사찰 해결의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와 주목된다.

회의에서 지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종단이 1982년 불교종흥추진위원회를 결성한지 25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서로 잘 합의해 대승적 입장에서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또 “지난 총회에서 새로 대책위원회를 선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적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대책위원들이 잘 의논해 원만하게 타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도 “총무원장 시절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다”며 “시절언언이 도래하면 이휘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첫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집약하고 봉원사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이것이 단초가 돼 한국불교사에 역사적인 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조계종측 향적, 법안, 승원 스님과 태고종측 일운, 운봉, 법현 스님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조계종측 향적(위원장, 중앙총회의원), 정유(중앙총회의원), 현문(총무원 총무부장), 승원(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총무원 재무부장), 성지(중앙총회의원), 지준(중앙총회의원), 장지(중앙총회의원), 법안(조계종측 봉원사 주지) 스님 등 9명과 태고종측 인공(위원장, 중앙총회의장), 보경(총무원 부원장), 월해(중무조정실장), 환우(봉원사 주지), 묵원(총무원 총무부장), 운봉(총무원 사회부장), 현성(중앙총회 교수), 일운(속천법음대 학장), 법현(총무원 교류협력실장) 스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동우 기자

**TIP** 봉원사 분쟁은?

조계종과 태고종은 1982년 불교종흥추진위원회(위원장 조계종측 현장, 태고종측 서봉)를 결성해, 경내재산(올다리 내)은 태고종으로 무상 양도하되, 경외 재산은 조계종이 임의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 종단간 사정으로 세월이 흐른 뒤 1989년 12월 10일 분규중인 사찰에 대한 기본 재산을 재단에 편입시켜 불교중흥에 따른 목적 사업에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법인을 설립하자는 조계종안과, 기공 토지 3만평을 조건 없이 조계종에서 재단에 편입시켜 중흥불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7만평과 법당 요사채 등은 태고종 봉원사로 귀속하자는 태고종안 이 대립해 해결되지 못했다.

1990년 양 종단은 봉원사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으나 양 종단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양 종단은 2005년 3월 8일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성해 수차례 실무위원회 및 대책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 불기 2551년 불자대상에 용태영·강부자·김병관씨



용태영씨, 강부자씨, 김병관씨

불기 2551년 불자대상에 용태영 변호사, 탤런트 강부자씨,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총무원장)는 “용태영 불자는 변호사로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청구(73년)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75년)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재가불자로서 불교 사회활동 및 세계불교교류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 “강부자 불자는 연극배우로서 방송과 연극무대에서 불법홍포에 앞장섰으며 한국불자 예술인연합회 교문을 맡으며 깊은 신행활동으로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됐고, 김병관 불자는 오랫동안 군포교에 남다른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국군 불교총신도회 회장으로서 군포교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군부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TIP** ‘불자대상’은?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에 공로가 큰 불자와 한국불교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공로가 큰 불자, 종단 발전과 홍보에 공로가 큰 불자,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로 선정 대상에 삼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된 불자대상에는 과학자 황우석,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前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 축구선수 박지성, 신약인 박영석, 2006년에는 탤런트 김용민, 육군대장 권영기씨가 수상했다.

#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길 ‘활짝’

## 전태종-조선불교도연맹 2천명 방북 합의

분단후 처음으로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길이 열렸다. 이는 개성관광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전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리규용 부장은 5월 16일 개성 봉동관에서 영통사 성지순례에 합의했다.

전태종과 조불련 관계자, 남측 무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북측 민회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한 합의서에는 “5월 29일 선배대 답사를 거쳐 6월 8일 500명, 18일 500명, 23일 1,000명 등 3차례 2,000명이 시범 순례에 나선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성지순례단은 오전 8시 파주 도

라산 남측 CIQ(출입관리사무소)를 출발, 북측 CIQ와 개성시내를 거쳐 오전 10시 30분 영통사에 도착한 뒤 영통사 보광원에서 남북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영통사 주변경관을 돌아보고 인근의 송도 호수와 개성시내의 선죽교, 성관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께 북측 CIQ를 통과해 남측으로 귀환한다.

이번 시범 성지순례는 당일 행사로 치러지며 참가비용은 1인당 17만원으로 확정됐다. 접수는 5월 28일까지 전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02)730-2401 김원우 기자

# ‘조계종 종단사태’ 징계 성문 스님 등 사면·복권

조계종 98년 종단사태 징계자인 성문·현소·원학·정우·월탄·남편 스님이 5월 24일자로 사면·복권된다.

조계종 총무원 홍보부(부장 심우)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통해 “종정에게서는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해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면·복권을 재가했다”며 “금번 사면·복권된 승려들은 그 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중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총회는 제173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사면·복권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남동우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본부지사 : (055)353-1196 경남본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본부지사 : (055)748-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한국선원, 후원금 5억원 기탁

## 포교원 어린이 포교 기금으로

한국선원(선원장 수불)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에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억 원을 약정했다.

후원금은 올해 5월 1억원 기탁을 시작으로 2011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원씩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 ‘석가탑 사리장엄구’

## 5월 24일까지 특별전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한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된다.

조계종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하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동제사리의합, 금동방향사리합 등의 사리장엄구 일괄유물 27건 29종을 전시한다.

지난 3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될 예정이던 석가탑 출토유물은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관에 대한 의견차를 보임에 따라 전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시가 끝되면 유물은 보존처리를 위해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다.

지관 스님은 18일 열린 개막식에서 “종단은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충분한 시설이 갖춰지면 반드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밝혔다. (02)2011-1960 여수령 기자

I Love Buddha / 마음 바꾸기

용정온(www.zenlooon.com)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지혜와 자비의 동물을 화합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세요. 가장 으뜸가는 공양은 보리심이라는 것들이요... 그 마음 가득 담긴 염두를 공양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야...”

조계종, 장애우 수계법회 봉행

불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만큼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 부끄러운 마음 급할 길 없기도 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거향찬(香讚), 향을 사무어 삼보를 찬탄함, 청성(請聖), 삼보를 청함, 청사(請師, 전제사를 청함), 개도(開導, 계의 의의와 가르침) 등으로 진행됐다. 계사를 자정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등을 많이 키는 것도 좋지만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우들을 자신의 마음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봉축의 의미”라고 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뒤 장애우들은 서원의 등달기와 어울 한마당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남동우 기자